

현장시선



김 정 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본질은 빠진 압축쓰레기 사과논쟁

지난 6월 10일 환경부는 평택으로 돌아온 필리핀 수출 쓰레기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처리결과를 보면 필리핀 세관에 적발되어 반송된 3394t의 쓰레기 중 제주도의 쓰레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처리결과가 발표되자 쓰레기 사과논쟁이 다시금 불붙었다.

사과요구는 어떤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제주산 압축쓰레기가 필리핀 세부로 갔다가 반송당해 평택항으로 돌아왔고 또 재포장되어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간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소재 평택항이 유무형적 피해를 본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이번 문제를 일으킨 중간처리업체는 경기도 소재 업체다. 이 업체가 사고를 치며 국가적 망신과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동안 경기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즉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도 소재의 업체이니만큼 경기도에서 수집된 쓰레기가 필리핀에서 반송된 쓰레기에 상당량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런 고려도 없이 사과요구만 한 경기도는 이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핵심당사자다. 필리핀과 한국의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였지만 사과 없이 모든 책임을 밖으로 돌리려고 한 경기도의 안일함은 분명한 실책이고 비판의 대상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격한 사과요구도 이해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제주도가 과연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나 있는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필리핀 민다나오섬에는 1783t의 제주의 압축쓰레기가 방치된 채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산항에 방치된 약 9000t의 압축쓰레기와 광양항의 약 600t의 압축쓰레기도 여전히 처리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제주도의 압축쓰레기가 필리핀, 평택시, 군산시, 광양시에 끼친 피해는 분명한 사실로 남아있다. 더욱이 제주도는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해 왔다. MBC 피디수첩이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더 커지고 꼬였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 보다는 경기도를 향해 사과타령을 하면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의 압력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기도와 제주도가 서로에게 사과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합심하고 교류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두고 더욱 고심해야 한다. 이런 본질은 빠지고 사과타령으로 감정싸움만 하고 있는 경기도와 제주도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줄길 바란다.

사설

주차시설 태부족, 차고지증명 우려된다

차고지증명제가 이달부터 제주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 이전시 반드시 자기 주차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하자마자 준비 부족이 제기되는 등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주지 1km 이내에 주차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구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차고지증명제가 제대로 안착될지 우려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2018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주차장 서비스권역 내 거주인구 비율은 500m 이내 4.04%, 750m 이내 6.96%, 1km 이내 13.42%, 1.5km 이내 22.21%입니다. 거주지 1km 이내에서 주차장 서비스권을 받을 수 있는 인구비율은 10%를 겨우 넘길 정도로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제주지역에 조성된 주차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지역은 제주보다 훨씬 나은 편입니다. 광주광역시(41.42%)를 제외한 서울·인천·대전·부산·대구·울산 등 전국 대도시시는 1km 내에서 주차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구비율이 모두 50%를 넘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의 교통환경이 날로 악화되면서 차고지증명제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문제는 차고지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제주시 원도심은 사실상 차고지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합쳐서 인구 2만2000명이 넘는 삼도1·2동은 임대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189면에 불과합니다. 임대료 부담도 만만찮지만 더 큰 문제는 차고지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차고지증명제가 하루빨리 정착하려면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제성 없는 신교통수단 도입 안된다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신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인구와 관광객,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할 경우 도심지 평균 통행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일 공고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제주형 신교통수단 도입은 지난 민선5기에도 검토됐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내내 후보자간에 핫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우근민 지사는 임기 중인 지난 2011년 노형오거리~삼무공원-제주공항~시외버스터미널~보성시장-제주항-제주국립박물관 등 12.5km 구간에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제성 미흡 등의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이번엔 제주자치도가 검토하는 방안은 신교통수단으로 바이모달 트램과 지상트램 모노레일 등이 연동-제주도청과 제주공항-제주항 사이를 운행하는 방안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또 2023년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관광진흥계획에도 신교통수단 도입방안을 제시했는데 일주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시속 60km미만의 저속형 트램과 제2공항을 중심으로 제주항이나 서귀포 환승센터 사이를 운행하는 100km 미만의 고속트램입니다. 문제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수익성입니다. 아무리 편의성이나 정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도 km당 수백억원이 넘는 열차가 투입되는 사업을 경제성을 확보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신교통수단을 이유로 버스업체와 택시업체에 열세를 추가로 쏟아붓는 것은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경제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투표항 사이를 운행하는 방안입니다.

열린마당

청렴의 의미



임 흥 성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우리는 청렴이라는 단어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매년 청렴 실천을 위한 교육을 받고 소양을 함양하며 공무원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해 감사부서의 감사와 조연으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가 행한 업무에 대한 외부고객의 평가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우리에게 보다 더 청렴할 것을 기대한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청렴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는지 그 이유를 청렴의 뜻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탐욕이 없다는 말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말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업무 추진에 있어 부정적 청탁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소양이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필자는 이를 바로고 고결한 정신에서 나오는 성실함이라 생각한다. 맑은 업무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더 나은 주민들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 또한 청렴의 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욕심이 없는 행동과 성실한 성품이 합쳐져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정할 마음을 갖고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처음의 낯섬과 긴장이 익숙함으로, 익숙함이 나태로 변하며, 청렴에 대한 초심은 서서히 잊혀질 수 있다. 공직생활을 하며 언제나 자신의 익숙함이 느껴질 때 청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뉴스-in

제주 현안 당·정 차원의 지원 촉구

원 지사, 국회에 아쉬움 피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역현안과 관련, 집권여당 원내대표에게 아쉬움을 표하며 정부 여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 눈길. 원 지사는 4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제주의 절박한 현안들, 4·3특별법과 2공항 문제 갈등, 녹지병원 등 국가적 협력이 필요한 때에 국회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입장을 피력. 앞서 이 원내대표는 2공항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견이 통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앞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다"고 언급. 조상윤기자

답례로, 진화다오시를 찾는 연 6700만명의 관광객에게 제주를 알릴 것으로 기대. 시 관계자는 "진시항제의 명을 받은 서북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진화다오시를 출발해 서귀포시를 거쳐 갔던 인연으로, 양시의 교류 다변화 등 현안을 협의했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IB 적용 대상 학교 주목
○...제주도교육청이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프로그램 지역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회가 진행된 곳에서 적용 대상 학교가 나올지 주목. 교육청 관계자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조천·성산·한림·애월·서귀포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대응은 요청이 있었지만 일부 반대도 있어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민감해서 공개할 수 없지만 관심 보이는 학교가 꽤 있다"며 "단순 관심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동문들의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 표성준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김흥섭(제주도교육청 총무과)
아버지 김해김공 봉동(국가유공자·향년 89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4일 12시 2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6일(토)
▶발인일사: 2019년 7월 7일(일) 오전 6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자: 양지공원
부 인 송정자
아 들 김흥식(敍)
흥섭 며느리 오순실
흥찬 고현숙
딸 김순자 사 위 강정부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평산신공 도영(향년 8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울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7월 5일
부 인 이운실
아 들 신상철 며느리 고미란
딸 신규옥 사 위 강창호
재옥 박옥서

evworld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중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매장 판매
전화 064-76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릉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도 한림읍 명사로106-7)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의료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영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